

SEOUL ISLAMIC CENTER



137/46, ITAEWON 1 -DONG, YONGSAN- GU, SEOUL , KOREA (140-858)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137-46 (140-858)

TEL 00822.794-0968 FAX 00822.794.0968 MOBILE 010-4440-0967

EMAIL: ISLAMINKOREA@YAHOO.COM

The True Religion of God

하나님의 참된 종교

지은이
아부 아미나 빌랄 필립 박사

옮긴이
마스우드 & 무함마드 아흐마드



아담북센터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알라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Allah,

Most Gracious, Most Merciful

| Contents

- 11 하나님의 참된 종교란 어떤 것인가?
- 14 종교들의 명칭
- 12 하나님과 창조
- 19 왜곡된 종교들로부터의 교훈
- 23 하나님의 종교가 갖추어야 할 보편적인 조건
- 26 하나님에 대한 인식
- 29 하나님의 징표
- 33 결론

알려주기



이 아랍어는 '쌀랄라후 알라히 왓살람'이라고 읽으며 '하나님의 평화와 은총이 깃드시기를'이라는 뜻으로 무슬림은 하나님의 예언자 무함마드 ﷺ의 이름 뒤에 존경과 사랑의 표현으로 붙여 부른다.



이 아랍어는 '알라히트 살람'이라고 읽으며 '평화가 깃드시기를'이라는 뜻으로 무슬림은 예언자의 이름 뒤에 존경과 사랑의 표현으로 붙여 부른다.



이 아랍어는 '라디알라후 안후'라고 읽으며 '하나님께서 그 분으로 인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뜻으로 예언자 무함마드 ﷺ의 남자 교우분들 이름 뒤에 존경의 표현으로 붙여 부른다.



이 아랍어는 '라디알라후 안하'라고 읽으며 '하나님께서 그 분으로 인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뜻으로 예언자 무함마드 ﷺ의 여자 교우분들 이름 뒤에 존경의 표현으로 붙여 부른다.

※ 본서에서 인용된 성 꾸란 의미의 한국어 번역은 최영길 박사의 「꾸란 의미 번역 한국어, 사우디아라비아 파하드 국왕 출판청」을 따른다.

하나님의 참된 종교란 무엇인가?

인간은 모두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환경에서 태어나 가족의 종교나 국가의 이데올로기로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 그리고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자신이 속한 사회의 믿음이 올바른 것이며 모든 사람이 그것을 따라야 한다고 강요당한다. 하지만 성숙한 사고로 새로운 형태의 가치관을 접하게 될수록 자신이 속한 사회의 이데올로기가 정녕 올바른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당혹스러운 것 중의 하나는 바로 모든 종교, 종파, 이념과 철학이 각자 자신들이 최고이며 자신들이 유일한 길이라 주장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사실 이 모든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옳은 일을 권장하고 있기는 하다. 그렇다면 무엇이 정녕 옳은 것일까? 각 종교마다 다른 종교는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모든 종교가 다 옳바른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진리를 추구하는 자는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이런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고력과 이해력을 선물해 주셨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의 하나이다. 이 결정에 그의 미래가 달려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냉철한 이성으로 제시된 증거를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올바른 것을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종교나 철학이 다 그러하듯이 이슬람 또한 오직 이슬람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길이라고 주장한다. 이 점 하나만 놓고 본다면 다른 종교와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뒷받침할 여러 가지 근거를 소개해 나갈 것이다. 읽어 나가기에 앞서 우리의 안목을 흐리게 하는 편견이나 선입견을 버리고 공정한 마음으로 읽어주시길 바란다. 선입견이나 편견을 배제해야 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내려주신 지혜를 제대로 활용하여 이성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슬람이 하나님의 참된 가르침이라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는 여러 가지이며, 이 책은 그 중에서도 가장

분명한 다음의 세 가지를 근거로 이를 논증하고자 한다. 첫 번째 근거는 종교 명칭의 신성한 기원과 관련하여, 그 의미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관한 것이다. 두 번째 근거는 하나님, 인간, 피조물들 사이를 설명하는 독특한 그러면서도 모호하지 않은 가르침에 대한 것이다. 세 번째 근거는 이슬람이 주는 가르침이 시대와 종족을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지향되어 왔다는 사실로부터 유추된 것이다. 이 세 가지의 근거를 통해서 이 종교가 하나님의 참 종교라고 칭해지는 이유를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다음 장에서 이 세 가지의 근거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종교들의 명칭

이슬람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슬람’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부터 알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슬람은 아랍어로 ‘알라’라는 진정한 한 분의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를 아랍어로 ‘무슬림’이라 칭한다. 이슬람이라는 종교의 이름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 의 성함에서 따온 그리스도교나, 붓다 개인에 대한 존칭에서 따온 불교, 혹은 맑스가 주창한 맑시즘처럼 창시자 개인의 이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나 인도인들이 믿는 힌두교처럼 이를 신앙하는 민족에서 따온 것도 결코 아니다. 이슬람 -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함 - 은 최초의 인간이심과 동시에 최초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분이셨던 아담 에게 부여된 종교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보내신 모든 예언자자들의 종교인 것이다. 이 종교를 칭하는 이슬람이라는 단어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것으로서 그 분께서 인류에게 계시한 마지막 성서에 명백하게 언급되어 있는 것이다. 이 마지막 계시는 아랍어로 꾸란이라 불리며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오늘 너희를 위해 너희의 종교를 완성했고 나의 은혜가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였으며 이슬람을 너희의 종교로 만족케 하였노라

꾸란 5:3

이슬람 외에 다른 종교를 추구하는 자가 있다면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내세에서 패망자 가운데 있게 되리라

꾸란 3:85

따라서 이슬람은 7세기 아라비아 반도에서 예언자 무함마드 ﷺ 께서 만들어 낸 새로운 종교가 아니라 원래부터 아담 ﷺ 과 그 이후의 예언자들에게 권능의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것을 최종적으로 완성시킨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 점에서 우리는 참되고 올바른 길이라고 주장하는 다른 두 종교를 간단히 비평할 수 있겠다. 성경에서 하나

님께서는 모세[⋮]의 백성들과 후손들에게 그들의 종교를 유대교라 부르라고 언급한 것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에게 그들이 따르는 가르침을 그리스도교라고 칭하라고 언급한 내용 또한 찾을 수 없다. 요컨대, ‘유대교’ 그리고 ‘그리스도교’라는 명칭의 기원은 다소 인위적인 것이다. 사실 그리스도교라는 이름부터가 그의 승천 한참 후에 생겨난 이름이다.

그렇다면, 원래의 예수[⋮]의 가르침은 무엇이였을까? ¹⁾ 그[⋮]는 추종자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올바르게 따라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슬람에서 예수[⋮] 역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언자로서 그[⋮]분은 아랍어로 ‘이-싸’라고 칭해진다. 그[⋮]분 이전의 다른 예언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분 역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의 복종을 호소하셨다.

1)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모두 히브리어에서 기원하여 헬라어와 라틴어에 스며든 것이다. 영어와 라틴어에서의 ‘Jesus’는 히브리어의 요수아나 여호수아에서 나온 헬라어의 이에소스에서 파생된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의 어원이 된 헬라어 단어 크리스트스 역시 메시아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것으로서 기름부어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는 이슬람의 기본 가르침이기도 하다.) 신약성서를 보더라도 예수[✝]께서 추종자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내용이 나온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영어 원문에서는 Hallowed be Thy Name) 나라가 임하시오며 (누가복음 11:2)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영어 원문에서는 Hallowed be Thy Name)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9-10)

이처럼 복음서에는 예수[✝]께서 이러한 바를 수차례 강조하셨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 그[✝]분께서는 오직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들만이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셨다. 예수[✝] 역시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21)

내가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요한복음 5:30)

그 분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일 뿐 결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많은 내용이 복음서에 있다. 예를 들어 최후의 시간에 관하여 예수^{彌賽亞}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가복음 13:32)

예수^{彌賽亞}께서는 그 분 이전의 다른 예언자들과 그 분 이후의 예언자^{先知}처럼 단 한 분이신 하나님께 복종할 것을 가르치신(다시 말해서 이슬람을 가르친) 분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과 창조

전적으로 하나님에게만 찬양과 복종을 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배의 핵심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성한 종교 이슬람의 기본 메시지이다. 오직 하나님 한분에게만 예배를 하고 소원을 빌어야 한다. 이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나 어떠한 장소 또는 기타 등등의 것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하나님 이외에 모든 존재는 바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이슬람은 인간에게 피조물을 숭배하는 것을 멀리하고 오직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께만 경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분만이 인간에게 경배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이시다. 인간의 경배에 대해 응답을 하는 존재는 그 분 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유로, 만약 인간이 나무에 대고 소원을 빈 후에 소원이 이루어졌다면 그 소원은 나무가 이루어준 것

이 아니고 그와 같은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신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것이다. 누군가가 이것이 명백하다고 설명하더라도 나무를 숭배했던 사람은 보편적으로 자신의 아집을 버리지 않고 고수한다. 같은 맥락에서 예수 ✠이나 성 크리스토퍼, 성 유다나 붓다가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이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다. 예언자 무함마드 ﷺ 께 소원을 빌어서 성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해 주신 분은 예언자 무함마드 ﷺ 가 아닌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예수 ✠께서는 그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자신을 숭배하라는 말씀 대신에 하나님을 숭배하라는 말씀을 남기셨다. 이는 꾸란의 구절로 뒷받침되는 내용이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아들 예수야 네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제쳐놓고 너 예수와 너의 어머니를 경배하라 말하였느뇨 라고 물으시니 홀로 영광 받으소서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아니했으며 그렇게 할 권리도 없나이다

꾸란 5:116

예수 ✠도 자신 스스로를 숭배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숭배하셨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4:8)

이러한 것은 꾸란의 첫 장으로 알-파티하에도 나와있는 것이다.

우리는 당신만을 경배하오며 당신에게만 구원하오니

꾸란 1:5

최후의 계시서인 꾸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간구에 응답하리라 (꾸란 40:60) (참조 예레미야 33:3)

이슬람(다시 말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한다는 가르침)의 근원적인 메시지에는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이 분명히 별개라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하나님이 그분의 피조물과 동등하지 않고 그 피조물의 일부이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으며 그 피조물이 하나님의 일부도 아닌 것이다.

꼭 지켜져야 할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인간이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을 숭배하는 것은 상당 부분 이러한 개념에 대한 무지와 태만에서 비롯된 것인 경우가 많다. 인간이 피조물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피조물 어디에나 실재하며 피조물의 일부분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다는 믿음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피조물을 숭배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예언자들에 의해 전하는 바에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하나님의 창조물(피조물)에 대한 숭배를 피하라는 메시지가 들어있다.

하나님께서서는 꾸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각 민족에 선지자를 보내어 하나님을 섬기되 우상을 피하라 하였으니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인도한 자 있었으며

꾸란 16:36

성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어째서 사람이 만든 신상에

절을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면, 우리는 돌이라는 것에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곳에 깃든 신을 모시는 것이라고 대답한다. 그들은 석상이 그저 신을 보이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은 절대로 신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 안에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다. 이슬람의 기본 메시지와 그 메시지에 함축된 바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합리적인 이유에서라도 우상숭배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수 세기에 걸쳐 자신들에게 신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간 안에 있다는 잘못된 믿음에 그 근거를 두곤 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보다 그들 안에 더욱 살아 계시어 다른 인간들은 그들에게 복종해야 하며 그들이 사람의 형상을 띤 하나님으로 나타났거나 그들 같은 특정한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화신으로 나타났으니 그들을 경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사람이 죽은 뒤에 신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간에게 신이 내재한다는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같은 부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슬람의 기본원리를 아는 사람들이나 그의 함축된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이 다른 인간을 섬긴다는 것을 받아 들일 수 없다.

하나님의 종교는 근본적으로 창조주를 숭배하라는 분명한 부름이며 어떠한 형태로든 피조물 숭배를 멀리하는 것이다. 다음의 한 마디야말로 이슬람의 핵심 중 하나이다.

라 일라하 일랄라하

(해석: 하나님 이외에는 신이 없다)

이 구절을 신실한 마음으로 선포하고 예언자 무함마드 ﷺ께서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자동으로 이슬람의 영역 안에 들어온 셈이 된다. 또한 진실하게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낙원이 보장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예언자 ﷺ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고 한다. “알라(하나님) 이외에는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그 신념을 굳게 가지고 임종을 맞는 사람은 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선언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예언자들께서 가르치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믿는자들에게 거짓 신들을 숭배하는 것을 멈출 것을 요구한다.

왜곡된 종교들로부터의 교훈

이 세상에는 분파들, 사교들, 종교들, 철학들, 운동들이 너무나 많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의 진실한 길이며 유일한 길이라 주장하고 있다. 어떻게 사람이 누군가가 옳은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는가? 진실로 모두가 옳은가?

정답을 알아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여러 주장자들이 궁극적인 진리라고 말하는 바들의 피상적인 차이점을 건어내고 그들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지향하는 중심 요체를 분별해 내는 것이다. 잘못된 종교는 모두 하나님과 관련해서 한 가지 근원적으로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다.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이라든가, 특정 인간이 하나님이라든가, 자연이 하나님이라든가, 하나님이 인간의 상상의 산물이라든가 하는 개념들이 그것이다.

따라서 허위의 종교의 기본적인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
이 자신의 피조물의 형태로 숭배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잘못된 종교에서는 피조물이나 그 피조물의 일부 단면을
하나님이라고 부름으로써 인간이 피조물을 숭배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예언자 예수 ﷺ는 그의 추종자들
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가르쳤으나 오늘날 그 ﷺ의
추종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 ﷺ가 하나님이라고 주
장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ﷺ를 숭배하도록 하고 있
다.

석가모니 부처는 인도의 종교에 여러 가지 인도주의적
인 요소들을 도입시킨 개혁자이셨다. 그는 자신이 신이
라고 혹은 신으로 여기라고 주장한 적이 없다. 또한 스스
로가 경배의 대상이라고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설파하지
도 않으셨다. 하지만 오늘날 인도 밖에 분포하고 있는 대
부분의 불교 신자들은 그가 마치 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의 모습을 상상해서 만든 우상에 절을 한다.

우리는 각 종교가 무엇을 숭배하는지 파악하고 고찰함
으로써 어떤 종교가 어떻게 왜곡된 종교인지를 쉽게 가

려낼 수 있으며 그 기원이 어떤 성격을 띠고 있었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꾸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것을 경배하지 말라 그것들은 너희 자신과 너희의 선조들이 붙여논 이름에 불과할 뿐 하나님이 그것들에게 아무런 권능도 부여하지 아니했노라 권능은 하나님께만 있노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 이외의 어느 것도 경배하지 말라고 하셨노라 그것이 진실된 종교라 그러나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하더라
꾸란 12:40

모든 종교가 좋은 것을 가르치는데 무엇을 따르든 무슨 문제가 되냐고 물을 수 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왜곡된 종교들이 가장 큰 죄악인 피조물 숭배를 가르치기 때문이다. 피조물 숭배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이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창조되었다. 이는 알라(하나님)께서 꾸란에 분명히 진술해 놓으신 바이다.

내가 영마와 인간을 창조함은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도록 함이라
꾸란 51:56

이에 따르면 우상 숭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피조물에 대한 숭배는 용서될 수 없는 죄악이다. 어떤 이가 그런 숭배사상을 가지고 죽었다면 내세에 있어 그의 희망은 끊어질 것이다. 이것은 단지 개인의 의견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후로 계시하신 말씀이자, 진실이다.

하나님은 그 분에 비유하려 한 자를 절대 용서하지 아니하시나 그 외에는 그 분이 원하는 자에게 관용을 베푸시니라 어떤 것을 하나님에 비유하려 하는 자는 죄인이라

꾸란 4:48

하나님의 종교가 갖춰야 할 보편적인 조건

잘못된 종교를 따름으로서 초래되는 결과가 워낙 심각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참된 종교는 언제나 어디서나 이해할 수 있으며 달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조건은 과거에도 충족되었어야 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전 세계 어디에서나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이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진정한 종교는 어떤 특정 사람, 민족, 장소, 시대에 국한된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보편적인 종교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침례(세례)가 있어야 한다 라든가, 구세주로서의 인간이 있어야 한다 라든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로서의 인간(성직자)이 있어야 한다 라든가와 같은 조건을 부과한다는 것 또한 논리적이지 않다. 이슬람의 중심 원칙과 그 정의(자신의 의지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 안에 이슬람의 보편성의 뿌리가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그 분의 피조물

로부터 구별되는 분이시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순간, 그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무슬림이 되는 것이며 낙원(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가장 외딴 지역에 사는 사람도 어느 때이든지 피조물을 숭배하는 것을 그만 두고 하나님께만 향함으로써 무슬림(하나님의 종교인 이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려면 선과 악을 분별해 선택하기를 계속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으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부여 받았을 뿐 만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힘도 부여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힘을 부여 받았다는 것은 중요한 책임감을 동반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간은 자신이 한 선택에 대해 하나님께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최선을 다해 선을 행해야 하며 악을 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념은 마지막 계시에서 다음과 같이 나온다.

꾸란을 믿는 자들이나 구약을 믿는 자들이나 기독교인들이나 천사들을 믿는 사비안들이나 하나님과 내세를 믿고 선행을 행하는 자

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주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것이며 그들에게는 두려움도 슬픔도 없을 것이라

꾸란 2:62

부유함과 어려움을 가리지 않고 자선을 베풀되 노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라 잘못을 저질렀거나 어리석은 짓을 했을 때는 하나님을 염원하고 너희의 죄를 회개하라 하나님 외에 누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겠느냐 그리고 저질렀던 잘못을 지속하지 말라

꾸란 3:134-135

만약 어떤 사람에게 마지막 계시가 분명히 설명되었지만 어떤 이유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매우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최후의 사명을 받으신 그 분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기독교인이든 유대교인이든 나에 대해 듣고서 내가 제시한 메시지를 인정하지 않은 채 죽음을 맞이했다면, 그들은 지옥의 거주자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사히 무슬림 제1권, 91쪽, 284번)

하나님에 대한 인식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길 수도 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배경, 사회, 문화가 다른데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한 분이신 참된 하나님을 믿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사람들이 한 분이신 참된 하나님을 숭배하는 데에 대해 책임 질 수 있게 되려면 그들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접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 계시를 보면, 모든 인간은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의 영혼에 본성의 일부로서 각인되어 창조되었다고 나온다.

꾸란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 عليه السلام을 창조하실 때 아담 عليه السلام의 후손이 존속하도록 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어 그들로부터 맹세를 받아내셨다.

주님께서 아담의 후손들을 일으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증언케

하리라는 말씀이 계셨으니 내가 너희 주님이 아니더뇨 라고 하시니 그렇습니다 저희는 당신이 주님이심을 증언하나이다 라고 그들이 대답하더라 이는 너희가 심판의 날 우리는 이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말하지 아니 하도록 함이라

꾸란 7:172

알라(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창조주이시며 숭배 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는 오직 참된 하나님 한 분 뿐이라고 증언하도록 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셨다.

말하자면, 우리는 마지막 날에 알라(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이셨음을 몰랐으며 그 누구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라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러한 말씀도 하셨다.

실로 저희 이전 선조들이 우상을 숭배하였을지도 모르나 저희는 그들의 후손에 불과함일 뿐입니다 그런데 무지한 사람들이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저희를 멸망하려 하심이요 하고 너희가 말하지 않도록 함이라

꾸란 7:173

모든 아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천적으로 가지

고 태어나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자 하는 성향을 타고 나게 된다.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지니고 있는 내적 성향을 아랍어로는 ‘피트라(Fitrah)’라고 한다.

예언자 무함마드ﷺ께서는 알라(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하셨다.

“나는 나의 종들을 올바른 종교 안에서 창조하였노라. 하지만 사탄이 그들을 이탈하도록 만들었다.”

예언자ﷺ께서는 이어서 이런 말씀도 덧붙이셨다.

“아기들은 모두 피트라(피트라의)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가 그를 유대교도로, 기독교도로, 또는 조로아스터교도로 만드는 것이지요.” (사히 알-부카리, 사히 무슬림에서 발췌)

이렇게 부모가 자식을 다른 길로 이끈다면 그 아이는 아직 강하지 않아서 부모의 뜻에 저항하거나 대항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아이가 따르는 종교는 관습과 양육에 의한 것으로서 하나님은 그가 인생의 어느 순간까지 그런 종교를 따르는 것에 대해 책임을 묻거나 벌하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징표

어린 시절부터 죽을 때까지 일생을 걸쳐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의 징표가 지상의 모든 종교와 사람들의 영혼에 제시되어 오직 한 분이신 참 알라(하나님)가 계시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꾸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분의 예증을 대지 안에서 그리고 그들의 영혼 속에서 보여 주리니 이것이 진리임을 그들이 알때까지라 주님이 모든 것에 대한 증인이라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꾸란 41:53

다음은 하나님이 우상 숭배의 오류를 징표로써 계시하신 사례이다. 브라질 아마존 정글의 남동 지역에서 어떤 원주민이 인간의 모양을 한 스콰치 우상을 모시기 위한 새로운 오두막을 지었던 적이 있다. 스콰치 우상이 모든 피조물의 최고의 신이라고 그 원주민은 생각했다. 그 다

음 날 어떤 젊은 사람이 그 우상신에게 존경을 표시하려고
 오두막에 들어갔다. 창조주이시자 부양해 주시는 주
 님이라고 배운 우상신 앞에 경례하려고 엎드렸는데 옴에
 걸렸고 벼룩이 잔뜩 있는 개가 살금살금 들어오는 것이
 었다. 그 젊은 이가 눈을 들어 보니, 개가 뒷발을 들어 올
 리더니 그 우상에 오줌을 싸는 것이었다. 화가 난 그는
 개를 그 오두막에서 내쫓았다. 나중에 화가 가라앉은 그
 는 그 우상이 온 우주의 주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
 았다. 하나님은 다른 곳에 계실 것이라고 그는 결론 내렸
 다.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상에 오줌을 싼 그 개
 의 모습은 그 젊은이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징표였던
 것이다. 그가 섬기던 것은 가짜였다는 것을 깨우쳐 준 신
 성한 메시지였던 것이다. 이 징표를 보고 깨달음으로써
 전통적으로 주입받았던 가짜(허위) 하나님 숭배를 맹목적
 으로 따르던 관습에서부터 자유로워진 것이다. 결과적으
 로 그는 선택의 기로에 있게 되었다. 참다운 하나님을 찾
 아 나설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오류를 계속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아브라함²²이 하나님을 추구하
 는 것을 사례로 들어, 하나님의 징표를 따르는 자들이 어

떻게 올바르게 인도되는지를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과 땅의 왕국을 보여주면서 그가 확고한 신앙을 갖는 자 중에 있도록 하였노라 그리하여 밤이 그를 어둠으로 가리우니 그는 별을 보고 이 별이 나의 주님이란 말이뇨 말하고 그러나 그것이 사라졌을 때 나는 사라지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함이라 말하였더라 찬란하게 떠오르는 달을 보았을 때 이것이 나의 주님이란 말이뇨 하더니 그 달이 사라졌을 때 만일 나의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분명히 방황하는 자 가운데 있게 됩니다 하였더라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서 이것이 나의 주님이란 말이뇨 이것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큼이라 하더니 태양이 사라졌을 때 백성들이여 나는 너희가 하나님과 혼동하여 숭배하고 있는 것을 알았노라 나는 실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분께로 나의 얼굴을 돌렸으니 나는 결코 하나님에게 다른 우상을 비유하지 아니하노라

꾸란 6:75-79

이미 전에 언급했던 것(꾸란 10:47, 16:36 참조)처럼, 모든 나라와 각 부족들에게 예언자들이 보내져, 인간의 본성에 따라 하나님을 인지하도록 돕고,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 중 하나인 하나님께 경배드리도록 하기 위한 사명을 실행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계시한 일상적인 징표들에 나타난 신성한 진리를 명백한 증거로 내세우기도

하였다. 이러한 예언자들의 가르침의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이 왜곡되었지만 알라(하나님)의 영감 어린 메시지를 드러내는 부분은 오염되지 않고 남아서 인류에게 선과 악을 (인식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는 것이다. 수세기를 거쳐 내려온 하나님의 영감이 깃든 메시지의 영향은 유대교의 토라(율법서)에 있는 십계명에서도 엿볼 수 있다.(이것은 훗날 기독교의 가르침의 일부로 흡수된다.) 뿐만 아니라, 살인이라든지, 도둑질이라든지, 간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 고대와 현대의 대부분의 사회에서 존속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알라(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을 걸쳐 사명 받은 자들을 통하여 인류에게 계시를 내리고 징표를 나타내주신 그 결과로서 모든 인류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참다운 하나님의 종교를 따라야 하는 책임이 있게 되었다. 알라(하나님)의 참다운 종교란 다시 말해 알라(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는 이슬람인 것이다.

결론

이제까지의 글은, 이슬람이라는 종교의 이름 자체가 이슬람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인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을 뜻하며, 이슬람이라는 어휘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말이라는 내용이었다. (꾸란 3:19-24, 3:85, 5:3, 6:125-126, 39:22, 49:15-17, 61:6-7 참조)

이슬람만이 하나님의 유일성과 그 참된 속성을 가르치고 있으며, 중재자 없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방식을 제시한다는 점도 설명하였다. (꾸란 17:110, 2:163, 112:1, 112:4, 2:255, 39:44 참조)

마지막으로 알라(하나님)를 경배하려는 성향은 모든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으며 알라(하나님)께서 여러 시대를 걸쳐 각 개인에게 계시한 징표로 인해, 모든 시대의 모든 사

람들이 이슬람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설명하였다. (꾸란 22:78, 24:62, 49:14-15, 30:30, 6:37, 6:39, 6:41-42 참조)

요약하자면, 이슬람-하나님께로의 복종-은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으로 시대를 막론하고 인류에게 이해되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태초부터 지금까지 어떤 언어로 설명되었던 간에 진실로 하나님의 참종교였으며 앞으로도 유일한 진리일 것임을 확신케 해준다.

결론을 대신해서 우리는 찬양 받으실 분이신 알라(하나님)께 간청드리고자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그리고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신 하나님께서 축복과 자비를 우리에게 하사해 주시기를. 모든 것의 주인이신 알라(하나님)께 칭송이 있기를. 하나님의 사명 받은 자 무함마드ﷺ와 사명 받은 모든 분들 그리고 그 분들을 따랐던 의로운 추종자들에게 평화와 축복이 깃들기를.

이슬람에 대한 한글 홈페이지 주소

www.quran.or.kr

www.islaminkorea.or.kr

이슬람에 대한 영문 홈페이지 주소

www.kalamullah.com

www.islaam.com

www.islambasics.com

www.tanzil.info

www.watchislam.com

www.islamqa.com

www.rasoulallah.net

www.abdurrahman.org

www.sultan.org

www.islamreligion.com

www.searchtruth.com

www.mp3quran.net

www.islamhouse.com

www.islam-guide.com

The True Religion of God

하나님의 참된 종교

저자	아부 아mina 빌랄 필립 박사
발행처	아담 북센타
초판일	서기 2010년 10월 30일 히즈리 1431년 11월 22일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137-46
전화	(02) 794-0968
이메일	booksadam@yahoo.com
홈페이지	www.islaminkorea.or.kr